



“세이프” 18일 광주 북구 일곡동 OB구장에서 열린 제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인왕리그 아도니스와 기사모의 경기에서 2회말 낮아웃으로 진루한 기사모 김신일 선수가 2루에서 투수 견제에 세이프 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제 1회 무등기 사회인 야구대회 개막

흠런포 ‘핑핑’...역전 또 역전 프로 못지않는 명승부 열전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선수들의 힘찬 비상이 시작됐다. 광주일보가 주최하고 기아자동차와 KIA 타이거즈가 후원하는 제 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동 OB구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2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초대 우승팀 자리를 놓고 출사표를 던진 51개팀 선수들과 가족 등 10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창준 광주시생활체육회장, 민주당 김재균 의원 등도 개막식장을 찾아 사회인 야구인들의 축제 한마당을 축하했다. 개막식에서는 500만원 상당의 경품추첨도 이뤄졌다. 천왕·지왕·인왕 3개 리그로 나뉘어 열리는 무등기 대회 첫 승리의 영광은 지왕리그의 승전 드래곤즈에게 돌아갔다.

승전 드래곤즈는 OB구장에서 열린 식전 경기에서 스틸을 10-2로 꺾고 대회 첫 승리를 신고했다. 슬러거 스토 버스터즈를 상대로 9-4 승리를 거두며 지왕리그 8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슬러거스의 승리 투수 유재영은 타석에서 흠런까지 기록하며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인왕리그에서는 아도니스와 위리어스 화이트가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아도니스는 기사모와의 경기에서 14-5로 5회 콜드승을 거뒀고, 위리어스 화이트는 캡코 브라더스를 12-10으로 제압했다. 선수출신들이 참가할 수 있는 천왕리그는 수준높은 플레이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OB구장에서 파이어볼스와 맞붙은

천왕리그의 위리어스 레드스는 팽팽한 접전 끝에 7-6으로 승리를 거뒀다. KIA 투수 출신의 김주철은 파이어볼스 4번타자 겸 유격수로 출전해 팀의 선취득점을 기록하는 등 활약했지만 팀은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용산 A 구장에서 진행된 에슬레틱스와 거창 꿀벌스와의 경기에서는 4개의 흠런이 터져나왔다. 1회말 거창꿀벌스 임현의 투런포를 시작으로 양팀은 홈런 두 개씩 주고 받으며 흠런으로만 10점을 만들어냈다. 경기는 에슬레틱스의 14-6, 5회 콜드승으로 마무리 됐다. 한편 이번 대회는 천왕리그 16개팀, 지왕리그 17개팀, 인왕리그 18개팀 등 총 51개 팀이 참가했으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벌여 초대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구 김창준 광주시 생활체육회장이 대회 시작을 알리는 시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선서 서한중 심판과 페가수스 박상태 선수가 대회 개막에 앞서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파울 천왕리그 개막경기인 위리어스레드와 파이어볼스의 경기에서 3회초 파이어볼스 나성주 선수가 타격을 하고 있다.

이승엽 시즌 12호 홈런 터졌다

팀 7-6 역전승 이끌어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한국인 거포 이승엽(35)이 시즌 12호 홈런을 터뜨렸다. 이승엽은 18일 일본 지바현 QV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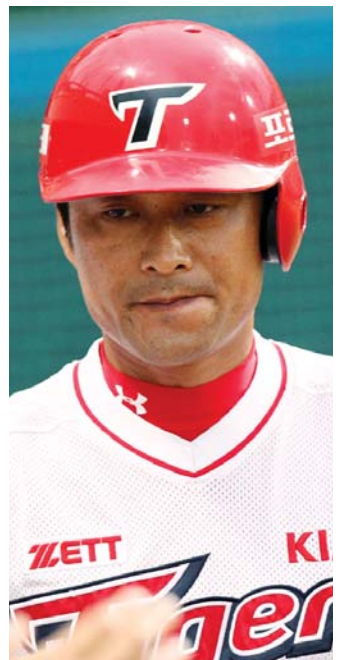
마린필드에서 열린 지바 롯데와의 방문경기에서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5로 뒤진 4회초 1점 홈런을 때렸다. 이승엽은 지바 롯데의 잠수함 투수 와타나베 순스케의 2구째 바깥쪽 심

커를 밀어쳐 왼쪽 펜스를 넘기는 아치를 그렸다. 지난 15일 라쿤빈과의 경기에서 11호 홈런을 친 지 3일 만의 대포다. 또 15일부터 이날까지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이승엽의 타율은 0.210을 유지했다. 이승엽의 홈런으로 추격의 불씨를 지핀 오릭스는 7회초 연속 안타로 3점을 뽑아 7-6으로 역전승했다. /연습뉴스

바람같이 1100 득점

KIA 이종범... 프로야구 통산 3번째

프로야구 최고령 이종범이 1100득점 고지를 밟았다. KIA 타이거즈의 이종범이 18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19차전에서 3회말 득점을 추가하며 프로통산 세 번째 1100득점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경기 전까지 1099득점을 기록했던 이종범은 1회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걸어나가면서 남은 1개의 득점을 재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나지완의 볼넷이 이어지면서 2루 진루까지 성공했지만 후속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홈을 밟지는 못했다. 0-3으로 뒤진 3회초 1사에서 이종범이 두 번째 타석에 섰다. 이종범은 좌중간을 꿰뚫는 2루타를 날리며 다시 한번 출루에 성공했다. 나지완의 우익수 플라이 때 3루까지 내달린 이종범은 김상현의 좌전안타가 이어지면서 여유롭게 홈에 들어왔다. 이 득점으로 이종범의 통산 1100번째 득점이 완성됐다. 1100번째 득점은 지난 2006년 양준혁(삼성)과 2007년 전준호(현대)만이 가지고 있는 기록, 이종범은 팀의 선취득점과 함께 프로야구 통산 세 번째 1100득점의 영예를 안았다. 위기의 상황에서 돋보이는 베테랑의 활약이다. 마운드가 흔들리면서 팀이 위기를 맞았던 8월, 이종범은 0.313의 타율로 팀 타선의 전면에 나섰



18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KIA-LG의 경기에서 이종범이 2사 3루 KIA 3루주자 이종범이 5번 김상현의 안타로 홈으로 들어와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이종범은 역대 3번째 1100득점. /연습뉴스

다. 홈런 하나를 포함해 8타점을 올린 이종범은 3개의 도루를 더해 7득점을 기록했다. 9월에도 매서운 타격감을 과시한 이종범은 1700경기 출장 기록도 달성했다. 이종범은 지난 10일 두산과의 원정경기에서 7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하면서 통산 14번째로 17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차종 17만원 ⇒ 12만원
- ▶ 만도네비 매립 (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마감재) 57만원 ⇒ 47만원
- ▶ 아이나비 2D 매립+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마감재 61만원 ⇒ 51만원
- ▶ 아이나비 3D 매립+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마감재 69만원 ⇒ 54만원
-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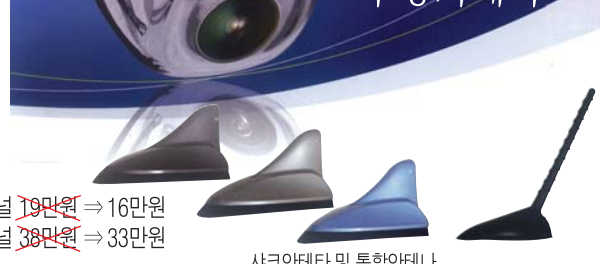
만도 블랙박스 BN100

선명함의 한계를 넘어! 아이나비 최초의 Real HD 블랙박스



▶ Real HD 11채널 26만원 ⇒ 24만원
 ▶ 파워세이프 별도 2만원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 후방카메라 13만원 ⇒ 9만원부터
 ▶ 샤크안테나 10만원 ⇒ 6만원부터

도난경보기 | 이지카 | 스타트버튼

스마트의 미래를 여는 기술선도기업 이지카!

한층 업그레이드된 ET!



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렌드가 하는 일

- 루마네틱, 3M코팅, 모비스네틱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일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둑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지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약세사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

